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경제, 미국】 美 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더욱 어려워진 경기 연락처

【가스, 러시아·유럽】 러·독 해저가스관 3개에서 연이어 가스 누출 사고

【경제, EU】 EU, 추가 對러제재 논의

【물류, 중국】 中,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을 위해 화물차 통행료 10%, 항만 사용료 20% 인하

【희토류, 미국】 미국,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국 생산 확대 추진

【원유·석탄, 인도】 인도, 러 원유·석탄 수입 감축

【LNG, 독일】 독일, 러시아 에너지의존 감축 위해 UAE와 가스공급 계약 체결

【LNG, 러시아】 러시아 가스프롬,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 증가로 '23년 예산 증액 발표

【곡물, 러시아】 러시아 밀 기록적 풍작, 하지만 수출 차질로 재고만 증가할 것



GVC 뉴스 더하기

- ① EU,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단일시장 긴급조치 추진
- ② 日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발표



GVC 기초상식

수소경제 1편 - 수소경제 개요



GVC 돌보기

주요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일본·중국편)



GVC 전문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방안'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김나을



더 찾아보기

美 「반도체 지원법」의 지정학적 영향과 한국의 대응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및 세미나 안내
- ② 공급망 아이디어 공모전 및 수출지원 서비스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경제, 미국】 美 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더욱 어려워진 경기 연착륙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9.21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3.00~3.25%에 도달.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섬
 -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7월 8.5% 이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로 나타나 실제 전망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 또한 8월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5천개 증가하고 실업률이 3.7%로 나타나 노동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역시 연준의 결단 배경으로 꼽힘
 -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75%p 웃돌게 되어 '자본유출, 원화약세 → 수입물품 환산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우려되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년 10월, 11월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됨
-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물가안정 복원 실패가 향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제약적인 정책의 결과로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며 강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드러냄
 - 연내 남은 두 번의 FOMC 정례회의에서 각 한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과 빅스텝(0.5%p) 전망

출처: 연합뉴스(22.9.2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가스, 러시아·유럽】 러·독 해저가스관 3개에서 연이어 가스 누출 사고

-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은 9.27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의 발트해 해저관 3개에서 하루 동안 연이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
 - 노르트스트림-1은 각각 연간 275억m³의 공급용량을 보유한 2개의 가스관으로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공급해 왔으며, 이달 초부터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나 내부에 여전히 많은 가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에 추가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완공되었으나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어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 노르트스트림 AG는 3개 가스관이 동시에 망가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같은 사고는 폭발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 가스공급 시스템 복구 시기를 예상하기는 이르다고 언급
- 이번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와 서방은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을 겨냥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보타주(비밀파괴공작)로 규정하고 “가동중인 유럽 에너지 기간시설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훼손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
 -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사보타주 탓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22.9.28) 등 종합

● 【경제, EU】 EU, 추가 對러제재 논의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및 동원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9.23~24일 EU 이사회와 추가 對러제재 패키지 도입방안 논의
 - (에너지) 원유 가격상한제 및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수입제한이 다루어졌으나 도입 여부는 미정
 - * EU 정책전문 언론사인 EURACTIVE는 한 EU 외교관으로부터 “EU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원유 가격 상한과 원자력 관련 제재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전달받았음을 밝힘
 - (다이아몬드) 러시아로의 다이아몬드 수출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금지도 논의

- 기존 부과된 對러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을 위한 방안도 다루어졌음
 - (첨단기술)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첨단기술품목 수출제재 강화 및 제재대상 품목 확대 요구
 - (금융)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대금 지급에 이용되고 있는 가스프롬은행, 알파은행, 로스뱅크, 틴코프은행 등 스위프트 네트워크 차단 제재에서 제외된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논의
 - (운송) 회원국 입항금지 러시아 선박범위 확대, 러시아産 원유 운송금지, 육상운송 제재 강화 등 요구
- EU집행위원회는 추가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EU 정상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23), EURACTIVE(22.9.26), 에너지경제(22.9.26) 등 언론보도 종합

● 【물류, 중국】 中,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을 위해 화물차 통행료 10%, 항만 사용료 20% 인하

-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을 위해 4분기부터 유료도로 화물차 통행료 10% 감면 및 주요 항만 시설사용료 20% 인하 결정
 - 9.22일 관영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교통과 물류는 시장경제의 명맥으로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지원하고 자금조달 비용 감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국무원은 지난 5월 6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르는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 중
 - 특히,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을 제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5.5% 안팎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출처 : 뉴시스(22.9.23)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희토류, 미국】 미국,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국생산 확대 추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외 의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있는 가운데 관세 부과 대신 자국생산을 확대하기로 결정
 - 이는 美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사 이후 대통령에 권고한 내용
 - 미국은 네오디뮴 영구자석 수입의 75%를 중국에 의존 그 외 일본(9%), 필리핀(5%), 독일(4%) 등에서 수입
- 상무부는 자국생산 확대방안으로 △자석 공급망 투자 확대, △자국생산 인센티브 지원, △동맹국과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자국 內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급망 취약성 완화 연구 지원 등 제시
 - 상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네오디뮴 자석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이번 권고사항이 함께 시행되면 2026년까지 미국 전체 수요의 51%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번 미국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국생산 확대 결정은 중국, 일본, EU 등과의 통상분쟁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22)

● 【원유·석탄, 인도】 인도, 러 원유·석탄 수입 감축

- 로이터통신(9.23)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유회사들은 9월 동시베리아-태평양양송유관(ESPO)을 통한 구매를 중단하는 등 러시아産 원유 및 석탄 수입 감축에 나섰다
 - (원유) 인도 업계 관계자는 “ESPO 가격이 UAE 등 원유 대비 배럴당 5~7달러 비싸졌다. 이전에는 러시아산 원유가 더 저렴했다”고 언급. 물류비용·수입가격이 오르며 러시아산 원유의 저가 메리트가 희석되었다고 분석
 - * 9월 인도向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는 200만톤으로 8월 355만톤 대비 대폭 감소. 아프리카, 중동산 수입 확대
 - (석탄) 9월 인도의 러시아산 발전용 석탄 수입량은 8월 대비 30% 감소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자문업체 '콜민트'는 비용상승 등 물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유럽 각국 선박들이 원료 확보를 위해 주요 물류망인 북유럽 발트해 인근으로 몰려 혼잡이 발생한 데다 수송 관련 보험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 축소는 러시아의 재정 상황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22.9.23) 등 언론보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종합

● 【LNG, 독일】 독일, 러시아 에너지의존 감축 위해 UAE와 가스공급 계약 체결

- 독일 국영 WAM통신 등에 따르면 9.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다년간의 LNG 공급계약에 서명
 - 숄츠 총리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LNG 생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단계적 투자를 통해 가스 수입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는 특정 생산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알 나흐얀 대통령은 “독일과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힘
- 독일 에너지 공급업체 RWE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올해말까지 UAE로부터 LNG 13만 7천㎥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 UAE 수입 물량은 북부 항구도시인 브룬스뷔텔 LNG 수입터미널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덧붙임
- 유럽의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 '에너지데이터'는 이번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독일은 전체 가스 수요의 13%를 수입 LNG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로이터통신은 독일의 UAE産 LNG 초기 인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래라 언급

출처: 조선비즈(22.9.26), KBS(22.9.26) 등 언론보도 KOTRA 유럽지역본부 종합

● 【LNG, 러시아】 러시아 가스프롬,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 증가로 '23년 예산 증액 발표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며 '23년 예산 증액 방침을 밝힘
- 파밀 사디고프 가스프롬 부사장은 “새로운 예산안은 천연가스 판매 매출이 당초 준비했던 예산안보다 34%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이 수출량 감소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설명
 - 또한, 금년 상반기 매출 증가로 세수를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야말반도 가스 저장시설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 서방과 러시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프롬은 6월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1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40%로 감축하고 7월 20%로 재차 감소시킨 것에 이어 9.2일부터는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 상황임

출처: 연합뉴스(22.9.23) 등 언론보도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곡물, 러시아】 러시아 밀 기록적 풍작, 하지만 수출 차질로 재고만 증가할 것

- 러시아 농업 컨설팅업체인 소비이콘은 올해 러시아는 밀 농사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되며 밀 수확량이 '21년 7,520만톤보다 약 33%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관련 수출관세 부담까지 겹쳐 현재까지 수출이 부진한 상태로 밀의 국내 재고가 평년 대비 늘어나고 있음
- 곡물은 서방의 수출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보험사와 금융권이 러시아와의 거래 자체를 피하는 상황이기에 국제곡물협회는 러시아의 금년 밀 수확량 증가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전년과 동일한 3,65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22.9.23) 등 언론보도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 ① EU,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단일시장 긴급조치' 추진

- ◆ EU 집행위는 9.19일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및 EU 단일시장 내 필수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를 제안한 바, 주요 내용과 시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추진 개요

- EU 집행위는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회원국간 수출제한 조치, △회원국의 필수 상품·서비스 비축, △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요구 및 우선공급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제안
 -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안 심의 및 채택을 걸쳐 발효 예정
- 코로나 및 러-우 사태 등 연이은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주요 부문 모니터링 및 비상시 시장개입 조치 수립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

● SMEI 주요 내용

- (대응 체계) 단일시장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자문단) 위기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각 회원국별 대표 1인이 모여 자문단 구성 → 연 3회 정기회의 운영
 - * 자문단은 각국 경제주체와 협의하여 시장정보 수집, 위기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다른 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유 촉진
 - (중앙 연락사무소) 회원국은 경계 및 비상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 연락사무소 지정 운영
- (대응 조치) 공급망 위기 단계를 △정상, △경계, △비상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조치 규정

<집행위 단계별 대응조치 제안 주요내용>

단계	상세 내용
정상 (Contingency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대비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및 대응 프로토콜 수립, 모의훈련 시행 - 회원국은 사전에 공급망 잠재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 기간, 취약 지역, 영향 등 파악
경계 (Single Market Vigi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서비스 중단 위협시 자문단 의견을 고려해 집행위에서 발동 가능 - 회원국과 집행위는 △공급망 모니터링, △잠재적 영향 평가, △전략 품목·서비스 식별, △경계조치 실시 - 회원국은 식별된 전략 품목 비축을 위해 집행위에 △재고, △구매가능성, △대체공급품 및 가용성 등 정보 제공
비상 (Single Market Emer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위기가 단일시장에 심각한 영향 초래시 집행위는 이사회에 비상경보 제안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 (비상경보) 사전 경계단계 없이 활성화 가능. 경보기간은 최대 6개월(집행위 제안시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는 위임입법을 통해 위기 관련 상품·서비스 목록 채택 및 긴급 시행조치 채택 가능 - △관련 상품 수출제한 및 우선공급, △EU 공동조달시 개별조달 금지, △재고확보 위한 허가 가속화 등 제안 - 해당 조치 및 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최대 벌금 20만 유로 혹은 전년도 총 매출액 1% 미만 범위에서 벌금 부과 </div>

* 출처 : EU집행위(9.19)

● 향후 전망

-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의 권력 강화 및 시장 간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산업계 역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긴급조치로 파업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 예상
 - 일부국가 언론은 '동 조치로 인한 집행위의 권력 강화 측면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
 - 유럽상공회의소 연합(Eurochambres)은 '일부 조치가 도를 넘을 수 있으며 기업들의 정보공개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현지 유력 싱크탱크 Bruegel은 '기업에 주문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조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며 집행위가 브뤼셀의 사무실에서 복잡한 공급망을 지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비판



GVC 뉴스 더하기 : ② 日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국·권역의 공급망 ESG 강화

- ◆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사 등이 화두**가 되며 ‘인권존중’ 역시 그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ESG 강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공급망 內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세부 내용 및 일본기업 대응 동향을 살펴보자

● 추진 배경

-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거래처인 일본 기업도 대응할 필요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제품·서비스 불매운동**이나 투자처의 평가절하, 투자매각(Divestment) 등 리스크 저감 가능

● 가이드라인 개요

- (인권실사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침해를 파악·개선하는 대응**을 의미하며, 기업의 직거래처 뿐만 아니라 2차, 3차 거래처에서의 인권침해도 대상임
- (요구사항) ‘인권 방침’ 마련해 경영진이 승인. 기업은 △인권침해를 특정하여 심각성 평가, △방지·경감 조치, △실효성 평가, △결과 공시 등 4개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공시는 연 1회 이상이 바람직)
- (대상기업)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국제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포함
- (보호대상) 지침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사례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따르지 않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종·장애유무·종교·성별·젠더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음
- (법적구속력) 지침이기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 제재는 없음

*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우선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정지도 고려

● 일본기업 대응

- '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52%가 인권실사 확립을 위해 노력** 중
 - 당시 기업 측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 제기

※ <사례>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패스트리테일링그룹**은 모든 거래처 공장에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3자 인증**을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된 면(綿)을 사용

*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원료부터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중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에 **인권존중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업이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
- 한국도 세계적인 ESG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인권 등 공급망 ESG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
 - 과거 자발적 참여 수준에 그쳤던 ESG 대응이 최근 주요 권역·국가의 **법제화*로 실질적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 글로벌 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EU 「공급망실사법」(인사이트 2호, 12호),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인사이트 19호) 참고

GVC 기초상식 : 수소경제 1편 - 수소경제 개요

- ◆ 세계 수소경제 시장규모는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는 등 **미래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의 생산에서 저장·운송·충전·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

〈수소경제 시리즈〉

29호: 수소경제 개요
30호: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31호: 수소의 충전·활용

● 왜 수소경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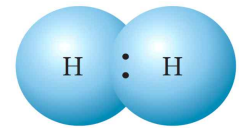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5, 파리)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아래로 막고 1.5°C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
- 195개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의무가 부여됨**



-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석유·석탄 등)를 대체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이용한 전력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주목
- 재생에너지는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져 전력수급이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

● 수소(H₂)의 특징

-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 전체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비 3~7배 수준의 높은 발열량 보유
- 수소는 활용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화석연료와 달리 지역적 편중도가 낮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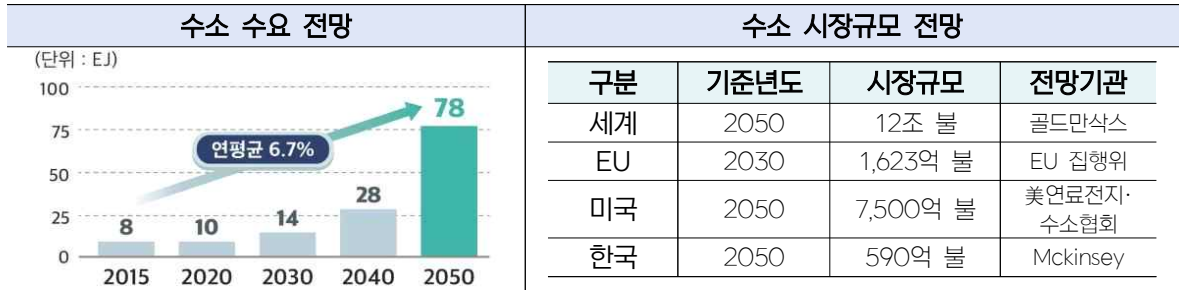


● 수소경제의 중요성

- ①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시 **국내 생산 가능**
 - 에너지원의 다각화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 강화**
- ② 친환경에너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전기를 만든 후 부산물로 **물(H₂O)만 배출되는 친환경에너지**
 - 태양광·풍력과 같이 기후에 따른 간헐성, 변동성, 지역적 편차 등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보완재의 역할**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 ③ 에너지 운반체(Carrier) 역할 수행**
 - 전력 등 他 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저장이 용이**
 - 저장 용이성은 유통·경제성 뿐 아니라 **도심 내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이점**
- ④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
 - 수송 분야에서부터 전기, 열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미래산업 창출 가능**
 -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드론, 건설기계 등)과 연계 가능** → 관련 산업 시장 확대 촉진

● 글로벌 수소경제 전망

- 골드만삭스社は 2050년 세계 수소경제 시장 규모를 12조 달러(약 1경 7천조원)로 전망.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2조 5천억 달러(약 2,750조원)로 예측



● 주요국 수소경제 동향

- 미국**
 -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개발에 착수하여 에너지부(DOE) 주관의 정부 주도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본격화(76~)
 - 탄소중립 경제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y Earthshots'의 일환으로 청정수소 수요 확대를 위한 'Hydrogen Shot' 발표(21.6)
- 독일**
 - 국가혁신프로그램(NIP) 기반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기술개발 지원 착수(06)
→ 국가 수소 연구소 'NOW' 설립(08)
 - 독일 연방 경제 및 에너지부(BMWi) 및 교육 연구부(BMBF)는 연간 6,000만 유로 지원금 투입(20) 및 관련 연구 269건 지원 중(21~)
- 일본**
 - 탈탄소를 위한 중점 분야로 수소를 선정하고 대규모 수소공급망 구축, 수소 수요 및 활용처 확대 등 추진
 -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2차 발표(19.3), 그린성장전략 수립 발표(20.12)

● 국내 수소경제 추진 현황

- (추진체계) 범부처 민관합동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중
* 국무총리(위원장),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정부대책)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05.9)'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로드맵(19.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등 다양한 대책 마련·발표
 - 수소차의 경우 국내기업의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20년 6,500여대, '21년 8,557대를 기록하여 세계 수소차 시장점유율 50% 차지(3년 연속 1위)
- (법·제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 지원정책,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2)

2005. 09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

2015. 12 수소차 공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

2018. 08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획



GVC 돋보기 : 주요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일본·중국편)

- ◆ 최근 환경·경제·공급망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로 일본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동향과 주요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례〉

28호: EU, 미국

29호: 일본, 중국

30호: 우리나라

일본

● 주요 정책

- ◆ 일본은 전기차 보급률이 최근 10년간 1%를 밑돌고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2021년 0.6%에 불과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일본 정부가 2035년 이후 신형 내연차 판매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일본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정부와 협력을 진행 중이며, 최근 편의점·가로동·골프카트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 등장
- '21.4월 일본의 배터리 및 부품업체 약 30개사가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¹⁾(BASC)' 설립
 - 정부에 배터리 공급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 전달
 - 희귀금속 제련 및 재활용 규칙 제정 추진 중
 -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서인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 설계·제안(22.4)

● 기업 사례

① 4R 에너지(4R ENERGY) <https://www.4r-energy.com>

◆ 기업 개요

- 닛산이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와 합작해 만든 EV 배터리 재사용 기업

◆ 최근 동향

- 잔존 용량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술 등 다수 기술개발 성공
- 후쿠시마 현에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품 공장 설립(19)
- 현재 약 1,500개의 EV 폐배터리 처리 용량을 약 3배로 늘릴 계획
-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배터리 판단 규정(UL1974) 획득



② 스미모토 금속공업(Sumitomo Corporation) <https://www.sumitomocorp.com>

◆ 기업 개요

- 스미모토 그룹의 전기분야 회사로 일본 최대의 비철금속 업체

◆ 최근 동향

- '23년까지 일본에 연간 7천톤의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을 구축할 계획
- * 삼원계 배터리에서 200톤의 코발트를 추출할 수 있는 용량 → 전기차 배터리 2만개 생산 가능



1) BASC(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 MITUBISHI CHEMICAL, HONDA, PANASONIC 등 일본 기업 참여

중국

● 주요 정책

◆ 중국은 2021년 양회 기간 중 발표된 정부 보고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

- '21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340만대로 전 세계의 51.5% 차지
- 폐배터리 규모는 '21년 25.2만톤에서 9년간 연평균 28.3%씩 성장해 '30년에는 237.3만톤에 달할 전망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19년 약 50억 위안(9,450억원)에서 2020년에 2배 성장한 100억 위안(1조 8,900억원)으로 급성장
 -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이 4만개사 이상이며 폐배터리의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 기업 사례

① 닝더스다이(CATL) <https://www.catl.com>

◆ 기업 개요

- 세계 최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 최근 동향

- 邦普(Brunp)사와 함께 6조원 규모의 배터리 제조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해 인광, 원료,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재활용 능력까지 갖춘 종합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
-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그룹 및 화학업체 BASF와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 체결


② 비야디(BYD) <https://www.bydauto.com.cn>

◆ 기업 개요

- 중국의 대표 전기자동차 업체

◆ 최근 동향

- 연간 2만 톤의 처리 용량을 갖춘 배터리 셀 재활용 공장 설립
- GEM과 배터리 회수·가공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0여 개 완성차 업체와 MOU 체결. 중국 내 40여개 배터리 재활용 기지 설립

③ 거린메이(GEM) <http://www.gemchina.com>

◆ 기업 개요

- '01.12월 심천에 설립되어 '10.1월 상장한 배터리 회수·가공업체

◆ 최근 동향

- 재활용된 니켈 코발트 전지 원료 중국 시장점유율 30%, 재사용된 전기차 배터리 중국 시장점유율 20% 차지
- 중국 폐배터리 30% 회수, 폐건전지 등 소비형 배터리 10% 회수


④ 화유코발트(HUAYOU COBALT) <http://en.huayou.com>

◆ 기업 개요

- 중국의 코발트 생산기업

◆ 최근 동향

- LG에너지솔루션과 폐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 수거한 폐배터리와 스크랩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을 추출해 양극재 형태로 LG에 공급할 예정





GVC 전문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김나을

- ◆ 최근 공급망 재편,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 코로나19 등이 지속되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이전 동기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기업이 새로운 아시아 거점*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아시아 거점'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소재지 의미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

-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시 해당 지역 수출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진출 지역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간접적 효과도 수반
-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공급망 재편, 자원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유치환경 조사 결과

- 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보유한 글로벌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한국을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 고려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
 - 한국은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서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에 이어 5위 기록

〈아시아 지역거점 고려 지역 순위(n=300)〉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 본토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UAE	태국	인도

- 한국을 아시아 지역본부 소재지 1순위로 고려하는 기업 비중은 3.3%로 싱가포르(32.7%)에 크게 뒤처짐

〈아시아 지역거점으로서 한국 고려 순위(n=30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비중	3.3%	10.0%	12.3%	8.3%	10.3%	10.0%	4.3%	8.9%	4.7%	6.0%

- 글로벌기업들은 향후 한국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고용여건, △영어 소통능력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실제 한국은 해당 부문에서 세계 하위권을 기록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세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외국인력고용 용이성) 세계 141개국 중 100위
(영어 구사력) 세계 63개국 중 52위

〈한국의 매력도 증진 방안 : 키워드 분석〉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또한, 한국의 기업환경은 생활환경 대비 경쟁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5점 만점) : (기업환경) 3.88점 (생활환경) 3.79점
-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인지도(5점 만점) : (기업환경) 3.58점 (생활환경) 3.72점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조세고용 등 비즈니스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프트파워인적자원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

절대우위의 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환경 전략적 홍보
① 조세제도 개편 ② 특구 지정 ③ 노동시장 혁신 ④ 국제비즈니스 허브 구축 ⑤ 생활환경 개선	① 소프트파워 연계 확대 ② 우수한 인적자원 홍보 ③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 △조세제도 개편, △특구 지정, △노동시장 개선, △국제 비즈니스 허브 구축,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절대적 경쟁력 확보**

① (조세제도 개편)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과 더불어 적극적 감세 혜택 확대

* 우리나라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모두 조세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OECD 37개국 중 법인세 33위, 개인소득세 24위, 재산세 32위, 국경세 33위

② (특구 지정)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구 지정

* 일본 정부는 도쿄 內 7개 지역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시 혜택을 제공하는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제도 운영 중

③ (노동시장 혁신) 외국인 고용률 제한과 제한적 비자 우대 요건 및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전문인력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④ (국제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제조 부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스타트업 및 글로벌 지원기관 유치 확대 등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⑤ (생활환경 개선) 영어소통,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전반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외국인 거주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생활환경 구축

* 옴부즈만(Ombudsman):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 한국 內 이미 갖추어진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글로벌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적극 홍보

① (소프트파워 연계 확대) 한국의 콘텐츠·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웨비나, 정보제공 확대

② (우수한 인적자원 홍보) 국내 청년층의 우수한 교육수준과 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적극 홍보

③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분산된 비즈니스 환경 정보채널을 통합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이미지 각인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찮은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출해야만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



더 찾아보기: 美 「반도체 지원법」의 지정학적 영향과 한국의 대응 (세계지식포럼)

- ◆ 올해 23회를 맞은 세계지식포럼은 ‘초과회복: 글로벌 번영과 자유의 재건(Super compensation: Restoring Global Prosperity & Freedom)’을 주제로 9.20~9.23일 개최되었다. 경상북도가 공동주관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지정학적 영향과 한국의 대응’ 세션 대표 연사인 물리 에덴 인텔 前부사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현안에 대해 살펴보자



〈강연 전체 링크〉

● 美 「반도체 지원법」 이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

- 머리카락의 굵기가 100,000nm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십년에 걸쳐 3nm까지 작아진 트랜지스터를 1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안에 500만여개 이상씩 집적한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량은 한국 20%, 일본 15%, 대만 21%, 북미 12%로 볼 수 있지만,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의 90%는 대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물리 에덴 인텔 前부사장 강연 현장 〉



(자료: 매일경제)

- 공동의 번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푸틴은 인공지능의 지도자가 되면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시진핑 주석 역시 시와 기술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긍정적 영향이 생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G7은 중국의 시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심각성을 인지하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500억 달러 규모의 「CHIPS Act」를 통해 미국의 제조 역량을 다시 끌어올리기로 결정하였고, EU 역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사실 반도체 제조는 단순한 산업적 측면이 아닌,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대한 리더십,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소유권, 경제적 지배력과 군사적 독점력 등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ASML처럼 리소그래피 분야의 유일무이한 기업 기술을 중국으로는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대만의 TSMC 또한 7nm급 이하 반도체 칩은 중국으로의 판매가 불가하다는 미국의 명백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 분야의 엔비디아와 그래픽 프로세서 분야의 AM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중국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경주에서 제외된 중국이 ‘시 관련 칩의 90%와 전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대응 방향

- 한국 역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이며, 작은 규모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한국은 대만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만,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제조 역량을 키운다면 미국 또한 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산업·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內 제조시설 구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TSMC의 경우 이미 진행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지자체의 다국적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및 로컬 R&D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인텔의 창립자 중 한명인 고든 무어의 ‘무어의 법칙 (Moore’s Law)’이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평가받는 시점입니다. 반도체의 밀도가 높아지며 끝없이 작아져 왔으나, 2nm 이하로 작아져 분자 단위 크기까지 간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기술이 될 것이기에, 대학·연구기관들에게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R&D 영역에 관한 움직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및 세미나 안내

● [포항 수해 지원] 포항 철강업계 수해 관련 경영애로 접수창구 안내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철강업계의 수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애로 접수창구 운영중
- (접수) 전화상담 및 서면(이메일) 접수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02-2100-1593 ✉ bcmd89@korea.kr
한국철강협회 기획관리실	☎ 02-559-3586 ✉ zejune.choi@ekosa.or.kr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IPEF 국제심포지엄] IPEF 협상개시 선언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IPEF 각료선언문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필러별로 살펴봄

- 일시 : 10월 6일(목) 14:00~16:3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E5

- 참가신청 :

IPEF 국제심포지엄(클릭) 하단의 '사업참가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kita.net 아이디 필요)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02-6000-5617 / jeff@kita.or.kr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10	개회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14:10~14:30	기조연설	
	기조연설 1	Adam Posen PIIE 소장
	기조연설 2	Deborah Elms Asia Trade Centre 대표
14:30~15:10	주제발표	
	필러1. 무역	김중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필러2. 공급망	산업연구원
	필러3. 청정경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팀장
	필러4. 공정경제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
15:10~15:50	종합토론	
15:50~16:30	Q&A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더 신청불가)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d></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및 수출지원 서비스 안내

● 2022년 수출바우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수출 여건 악화 및 무역 적자 증가와 같은 수출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현장감 있는 수출 지원 서비스 제안을 수출직결형 수출바우처 서비스로 반영하고자 함

	①수출바우처 사업	②수출바우처 아이디어
제출내용	서비스 개요, 서비스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사업화 사례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서비스 개요, 서비스 세부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자유롭게 작성
제출양식	<u>아래 참가신청 링크</u> 접속, 가이드라인 참고 후 최대 10페이지 내의 PPT와 공고문 내 응모 신청양식 작성하여 지원	<u>아래 참가신청 링크</u>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체크 후 질문에 따라 내용 기입

- 참가신청 : [2022년 수출바우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클릭\)](#) 내용 확인 후 공고문 내 [모아폼 링크](#)를 통해 응모 분야의 제출양식에 맞춰 접수
- 응모기한 : 10월 10일(월) 限
- 응모자격 : 수출바우처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국민 누구나 가능
- 참고사항 : 각 분야의 시상 내역 및 주요 평가항목은 참가신청 링크의 [\(첨부\)공고문](#) 참고 바람
- 문의처 : KOTRA 수출바우처 통합 안내 ☎ 1533-4323 / voucher@kotra.or.kr

● 2022년 제6차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모집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고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단계	주요 지원 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 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 원	KOTRA
		1년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 참가비용 : (6개월) 220만 원 / (1년)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 신청기한 : 10월 12일(수) 限
- 참가신청 : [2022년 제6차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모집\(클릭\)](#)에서 [\(첨부\)공고문](#)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외지사화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참고사항 : 지원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사업 단위별로 1개의 품목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 선택하여 신청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김은희 대리 ☎ 02-3460-7439 / goeunii@kotra.or.kr
KOTRA 유망기업팀 조은비 대리 ☎ 02-3460-7441 / enbi94@kotra.or.kr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9. 28. 수)

[환율]

	'20.12.31	'21.12.31	'22.8.31	'22.9.23	'22.9.26	'22.9.27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37.60	1,409.30	1,431.30	1,421.50	-0.68%	+19.59%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37.90	1,408.80	1,430.90	1,422.10	-0.61%	+19.50%
₩/CNY	166.04	186.51	194.16	198.45	200.15	198.90	-0.62%	+6.64%
₩/¥100	1,051.19	1,032.48	965.99	991.56	994.65	984.96	-0.97%	-4.60%
Y/U\$	103.34	115.14	138.47	142.13	143.90	144.32	+0.29%	+25.34%
U\$/EUR	1.2279	1.1318	1.0026	0.9823	0.9645	0.9658	+0.13%	-14.67%
CNY/U\$	6.5305	6.3681	6.8961	7.0962	7.1628	7.1539	-0.12%	+12.34%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9.26 (전일)	'22.9.27	22.9.27			
					전일(9.26)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84.90	84.30	▼0.6 -0.7%	▲34.3 +68.4%	▲7.2 +9.3%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6.10	97.60	▲1.5 +1.6%	▲10.3 +11.8%	▼23.2 -19.2%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449.00	7,475.00	▲26.0 +0.3%	▼280.5 -3.6%	▼2,217.0 -22.9%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125.50	2,106.00	▼19.5 -0.9%	▲154.5 +7.9%	▼700.0 -24.9%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2,150.00	21,890.00	▼260.0 -1.2%	▲5,983.0 +37.6%	▲965.0 +4.6%

[반도체]

	'20	'21	'22.6	'22.7	'22.8	9.22	9.23	9.26	9월(~2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37	3.11	2.76	2.50	2.50	2.50	2.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25.4%	-31.6%	-34.0%	-32.8%	-32.5%	-32.3%	-32.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1	6.83	6.57	6.57	6.57	6.57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23.0%	+1.4%	-4.2%	-5.7%	-6.0%	-6.0%	-5.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9.2	'22.9.9	'22.9.16	'22.9.23	22.9.23	
						전주(9.16)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2847.62	2562.12	2312.65	2072.04	-10.4%	-58.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7.29	'22.8.31	'22.9.21	'22.9.22	'22.9.23	22.9.23	
							전일(9.22)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965	1746	1720	1816	+5.6%	-18.1%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